

# 찾아가는 포교로 패러다임 바꾸자

조계종 포교원이 수행플러스 포교전략 10대 부문과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계획을 공개했다.

수행플러스 포교전략 10대 부문은 △조계종 신도 정체성 확립 △조계종(핵심)신도 양성 △조계종 신도 교육 수행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중단 포교행정시스템 구축 △포교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화 △미디어 포교의 활성화 △법회 의례의식의 개선 및 한글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 △전라지역 포교 활성화 △국제 포교 활성화 등이다.

포교원의 10개년 계획에 대해 공청회에 참가한 지정토론회자들은 '포교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이론적인 계획' '신도 수준에 맞지 않는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비밀자 중심자용 포교전략 없다' '현대에 맞는 포교인식 변화 없는 중앙' '정작 손바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등 신랄하게 비판했다.

10개년 계획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실제로 포교원이 100대 과제를 시행해나갈 추진력과 재정이 뒷받침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10개년 계획에 현장의 소리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지정토론회자로 참석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주경,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명성여고 박영동 교장,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 월정사 박재현 기획차장 등 6명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다. 이로부터 벗어나 포교패러다임을 현대에 걸맞게 재편하는 작업이 선행됨과 동시에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 조계종 포교 10개년 계획 수립 공청회

2005년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별원으로 독립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포교원은 별원 10주년을 앞두고 지난 10년의 성찰과 향후 10년의 포교계획을 수립하는 좌담회와 공청회를 12월 7·9일 잇달아 열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포교원의 포교 10개년 계획 수립공청회에서는 포교현장의 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 10대 부문 100대 과제로 '큰 그림' 내놔 '행정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현장 중심의 포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환경에 걸맞은 포교전담인력과 프로그램 지역별 인적자원 제공 및 연계 등이 중단 차원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찾아오는 사람 중심의 포교에

서 찾아가는 포교를 통해 쌍방향 포교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박재현 기획차장의 의견은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방정적으로 참석한 참여불교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면 특성화된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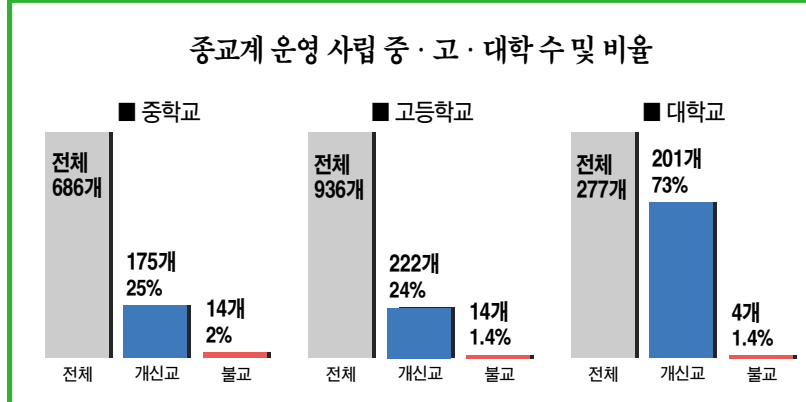
교전략을 세울 수 없음을 지적하고 지역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는 전국 포교지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포교정책연구소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본각 스님과 이상근 총무부장은 전문포교인력을 양성해 포교환경 포교대상 포교내용 포교의식 등 전반적인 포교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연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교원 조직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포교부장 일관 스님도 공감했다. 포교원의 역할 재정립과 맞물려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포교원은 각종 포교 정책 전략 수립에 좀더 매진해야 하고 포교행정보다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일선 포교사찰 단체 등 지원에 인력배치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포교에 있어 수행이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교전략상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견해도 나왔다. 박영동 교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불교의 가치관을 익히고 그 바탕 위에서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포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수행을 강조하는 포교가 그 효과를 불러일으킬 포교대상자가 전체의 몇이나 되는지 검토하고 나서 포교에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앞으로 조직 개편과 체제 정비를 하고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도록 포교행정을 연구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준 화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이 같이 하는 것이다. 교구본사 특성화 포교프로그램 구축에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강지연 기자



## 종립중 전체의 2%, 고 1.4%, 대 1.4%

조계종 포교원 자료집 '불교계 현주소' 생성

2004년 10월 현재 조계종 소속 사찰은 모두 2890개이며, 스님은 비구 6395명·비구니 5997명 등 총 1만 23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자 국회의원은 16대 43명(15%)에서 17대 34명(11.4%)으로 줄었다. 가톨릭은 66명(24.1%)에서 70명(23.4%)으로, 개신교는 112명(41%)에서 103명(34.4%)으로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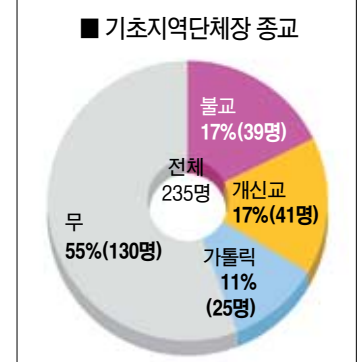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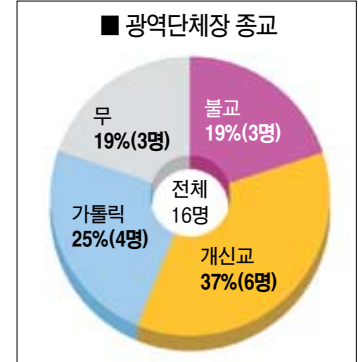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12월 9일 개최한 '조계종 포교 10개년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조계종의 현주소를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2004년 11월 조사한 단체장들의 종교를 보면 개신교 6명(37%), 천주교 4명(33%), 불교 3명(19%), 무교 3명(19%)이다. 기초단체장은 불교 39명(17%), 개신교 41명(17%), 가톨릭 25명(11%), 무종교 130명(55%)이다.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비율은 불교계가 최저로 떨어진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686개 중 불교는 14개(2%)에 불과해 175개(25%)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개신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전체 936개 중 불교계 학교는 14개(1.4%)에 불과했으며 개신교는 222개(24%)에 이르고 있다. 대학역시 전체 277개 중 개신교는 201개(73%)이지만 불교계 대학은 4개(1.4%)에 지나지 않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제공한 '종교계 운영 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총 2343개 중 불교는 322개(14%)로 개신교 1401개(60%), 가톨릭 620개(26%)에 비해 저조했다.

미디어포교역시 극동방송과 기독교방송이 3%를 선회하는 방송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불교방송의 경우 0.07%에 지나지 않아 0.3%를 기록한 후발주자 원음방송에도 밀리는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종교명	사이트수	1위 사이트명	전체순위	
1	개신교	114	갓피플닷컴	185
2	교회	105	사랑의교회	162
3	개신교동교회	13	직장인 성경공부모임	2821
4	천주교	12	가톨릭인터넷	927
5	불교	38	부다피아	4157

## 포교원 별원 승격 10주년 기념 좌담회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좌담회는 시대흐름에 맞는 불자 수련, 신도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주제로 향후 10년간 포교 계획안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승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참석해 포교 현장 사례를 제시하고 포교원 10개년 포교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참석자들은 '포교원 별원 10년 평가'를 통해 "앞으로 포교는 물론 중단 운영 패러다임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약.

▲정념 스님: '월정사 단기출가'에 대한 세간의 폭발적 관심은 불교 정신세계에 감증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적, 종교적 불교 유산을 현대적으로 가공해 현대인에게 다가

## "방향 정립 기여... 변화 따라잡기 미흡"

일관된 방법·세심한 프로그램·충분한 예산 따라야

갈 수 있도록 변형해야 한다. 중앙 행정중심 포교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포교로 나아가면서 중앙과 본·말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지광 스님: 수행과 지식이 겸비된 전문포교인력양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 능인선원에서는 '살아있는 불교'로 신도들을 교육했다. 스님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신도들이 원하는 스님상은 무엇 일까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고민했다. 그래서 사찰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더니 신도들이 스님을 믿고 따르게 됐다.

## 이제 중단에서 각 사찰에 일관된 수행

방법을 제시,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조계종만의 특징적 수행 프로그램, 스타일이 필요하다. ▲수불 스님: 이제 한국불교가 극복 신

앙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불자들의 물음에는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근원적인 것도 모르는 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제대로 불법을 흥포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에는 화력과 연령 등을 고려한 세심한 포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포교원에서는 포교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현장의 실패와 어려움을 토론했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연오 전무(삼성경제연구소, 재가자 대표): 포교원 예산 20억을 1000만 불자로 나누면 1인당 200원으로 포교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앞으로는 불가 특유의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김강진 기자

#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초종파적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최초로 출가득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 및 특강반을 개설하여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과정**
  - ▶ 출가자(행자)과정 - 출가득도를 희망하는 남·여(1년)
  - ▶ 경전연구자 과정 - 스님 및 교인, 관심있는 불자(1년)
  - ▶ 의 식 과 정 - 초심자, 불자, 법사, 교인, 스님(1년)
    - 기본반: 4개월(월,화) ○ 전문반: 4개월(수,목) ○ 연구반: 4개월
  - ▶ 의 식 과 정 -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지도함
    - 바라춤 - 바라춤에 관한 일체를 집중 지도함
    - 착복반 - 다계 도량에 사방요신등 일명 나비춤을 집중 지도함
    - 사물반 - 목탁 요령 태정 법고등 사물다루는법 지도
    - ※ 그 외 호적, 서예, 생활역학 등을 희망하시는분 직접 지도해 드립니다
-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 02)763-5213 (기숙사 및 숙식 가능함. 주차장 완비)
- 3 개강일자** 2005년 1월 3일 오후 4시(예정)
- 4 모집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집합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람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회 불교단체
- 신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야단법석은...**

- 운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산다면.....
  -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현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법회, 사심구재보현
  - 스님은 다비와 사심구재, 신도는 시다림과 사심구재
- 관음사업부 - 법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 법당전용스피커 v-818
- 지장사업부 - 다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지정 다비장 운영

야단법석 문의: 050-5244-0108

###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화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만 교체 하셔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에 드립니다.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장난다.
2. 랙(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1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 기기도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한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습거나 너무 건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집안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 마이크선, 연결잭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을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볼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명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